

‘전선’에서의 건축 비엔날레와 한국관

Architecture Biennale from ‘the Front’ and the Korean Pavilion



심 소 미 Sim, Somi
독립기획자
Independent Curator
somisim22@gmail.com

시대적 위기와 비엔날레의 전환

베니스 비엔날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엔날레로, 미술, 건축, 영화, 무용, 연극, 음악 등 여러 장르의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미술전과 건축전이다. 지난해 개최된 미술전의 경우 나이지리아 출신의 큐레이터 오키위 엔위저(Okwui Enwezor)가 총감독을 맡았다. 엔위저는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라는 주제로 동시대적 분쟁과 정치적 상황에서 예술의 사회적 의식을 강조하며, 은폐된 역사와 사회상을 발언하는 예술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켰다.

본 전시에 초청을 받은 한국작가 임흥순이 여성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위로공단(Factory Complex)’으로 은사자상을 수상한 것도 부조리한 시대에 맞선 예술을 조명한 결과이다. 이러한 열기를 이어가듯 올해 비엔날레에서는 건축이 ‘전선(戰線)’에 나섰다. 이 선전포고는 올해 건축전 총감독인 칠레 출신 알레한드로 아라베나(Alejandro Aravena)가 내건 것이다.

작년과 올해 근 2년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비엔날레가 사회정치적 발언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베니스 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 곳곳의 예술 행사와 전시에서 분쟁, 경제난, 재난, 테러 등의 위기로부터 예술의 현주소를 모색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주류 미술계의 변화와 같이 미학적 질서가 지배적이었던 건축계의 변화 또한 심상치 않다. 아라베나의 주제 ‘전선에서 알리다(Reporting From the Front)’는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작년 미술전보다도 더 논쟁적으로 사회상을 비엔날레에 반영코자 한다. 건축은 사람

들의 삶의 공간이자 도시이자 환경이다. 따라서 건축에서의 ‘전선’이란 삶에 봉착한 각종 위기의 상황들을 미술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이번 비엔날레가 모색하는 건축의 역할은 도시와 주거, 건축의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아라베나가 전시서문에서 언급하듯, ‘불평등, 지속 가능성, 불안, 분리, 교통, 환경오염, 폐기물, 이주, 자연 재해, 비정형, 주변부, 주거난’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와 권리가 걸려있는 문제이다. 이에 응답하듯 65개의 국가관들 다수가 자국의 사회적 위기, 도시 문제, 건축적 위기 등 문제들을 내걸고 나왔다.

위기에 맞서고자 하는 각국의 건축적 제안들 사이에서, 한국관의 김성홍 감독은 한국의 특수한 건축 환경으로부터 ‘용적률 게임: 창의성을 촉발하는 제약’이란 주제를 내세웠다. 본 글에서는 각 국가관이 다루는 ‘전선’의 상황과 건축적 제안들을 동시에 살펴보고, 올해 비엔날레에서의 한국관 전시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국가별 ‘전선’과 건축 쟁점

전장에서 건축의 적은 삶의 공간을 위태롭게 하는 세상의 온갖 위기들이다. 각 국가관의 주제는 마치 신문의 국제면을 들여다보듯 이주, 난민, 전쟁, 재난, 주거난, 경제난, 분쟁, 테러 등 여러 사회, 정치, 도시, 경제적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주류 건축계가 미학적 견해로부터 이리 태도를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을 보면, ‘세계가 막다른 길에서 예술계가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총감독이 제안한 건축의 사회적 의식은 국가별 쟁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건축적 제안들을 이끌어내 보인다.

건축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 국가관의 이슈는 전 지구적 문제와 동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좁혀지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로 1) 난민 문제에 대처하는 건축 제안(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핀란드), 2) 폐허로부터 재생, 건축의 자생성 도모(스페인, 벨기에, 일본), 3) 위기의 환경과 내일의 생태(발틱, 캐나다, 페루), 4) 로컬의 건축 쟁점으로부터(한국, 폴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난민 문제에 대처하는 건축 제안

첫 번째, 난민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이 국제 사회에서 중요히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건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주어진다. 난민이라 함은, 즉 낮은 나라에 도착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 수용 시 주거지에 대한 사회적 정책 마련이 시급해진다.

독일, 그리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관이 난민의 주거문제에 접근하며, 이를 사회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할 건축적 제안들을 선보인다. 이 중 ‘고향 만들기, 도착 국가(Making Heimat, Arrival Country)’를 주제로 한 독일관의 공간 연출 방식이 꽤 호소력 있게 드러난다. 유럽의 각국이 난민 수용에 애를 먹고, 일부는 거부할 하고 있는 시점이라 독일관은 실제로 외벽을 일부 부수어 오픈 파빌리온을 구성함으로써 난민 수용의 사회적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오스트리아관의 경우, 난민 수용의 방안을 테이블 위 제작된 신문들을 통해 공론화하고자 한다. 독일관이 ‘오픈 파빌리온’이라면, 오스트리아는 ‘오픈 테이블’의 전시 구성을 취한다. 그리스관은 난민을 포함한 여러 사회적 위기를 논의할 ‘이동 가능한 공론장’을 전시장 안팎으로 제안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형인 사안인 만큼, 이를 다루는 국가관은 제안을 내세우는데 머무르지 않고 수용의 의사, 공론화의 의지, 정책적 마련 등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의식이 강하게 담긴다.

폐허로부터 재생, 건축의 자생성 도모

두 번째, 경제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축이 어떻게 자본에 매몰되지 않고 자생 가능한지에 대한 제안은 급변하는 도시 환경을 가진 우리의 상황에서도 곱곰이 생각해볼 지점이다. 경제, 사회적 위기로부터 폐허화되어 가는 도시 풍경은 스페인과 벨기에 국가관에서 고려된다. 여기서 건축가들의 제안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들에 개입하여, 미완의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 가운데 최소한의 디자인을 통해 이를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다. 2008년 당시 금융위기로 극심한 타격으로 폐허가 된 삶의 공간을 건축적 개입을 통해 재생시키고자 한 스페인 건축가들의 노력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공을 인정받아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로부터 건축의 자생력을 도모하는 또 국가로는 일본관이 있다. 전통 건축구조를 일상적으로 고려한 리노베이션, 지역 커뮤니티를 보듬는 공유 공간과 소외층을 위한 공유 주택 등을 선보인 일본관은 특별 언급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 그 공로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개념보다는 실천으로서 지속해 온 일상적 환경 구축에 세계가 주목한 것이다. 다수의 국가관이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건축적 제안과 유희공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스페인과 일본 두 국가의 수상 사례는 무엇보다도 일시적인 건축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적인 삶과 관계된다. 건축의 자생성은 결국 삶이 자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일상적 도시 환경과 보통의 삶을 지지하는 건축적 제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기의 환경과 내일의 생태

세 번째, 오늘날 인류의 자연 환경에 대한 건축적 접근 또한 몇 국가관에서 흥미롭게 다뤄진다. 환경은 자연뿐만 아니라 자원 그리고 구축된 환경이라는 동시대 전 지구적 지형도와도 맞닿는다. 오늘날 인류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인공 환경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발틱해를 낀 세 국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올해 첫 연합하여 참가한 발틱관은 이러한 ‘구축된 환경-지어진 환경’에 대

한 탐구를 현 인류에 닥친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 속에서 접근해 보인다. 전시에서는 이상기온, 인류세 지질고고학, 핵반대 운동과 최근 일어난 천연에너지 신산업화 반대 운동 등 광범위한 사회적 이슈들이 등장한다. 이 수많은 지층과 소재들의 레이어로 전시는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이나 이는 오늘날 지구의 혼재된 생태계를 드러내는 한 단면이다. 겹겹이 쌓인 구축된 지층 사이에서 전시가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인류에게 어떠한 미래의 환경이 가능한가?’이다. 발틱관 외 자원과 지구의 환경에 대한 접근이 도드라진 국가로는, 캐나다와 페루를 들 수 있다. 캐나다관은 외부 대지에 작은 구멍을 뚫어 글로벌 자원 제국이라 자국의 지정학 상황에 대한 영상을 힘있게 전달하며, 오늘날 자원 제국주의를 질문한다. 아마존에 파괴되어 가는 상황으로부터 페루의 건축가들은 숲속 학교를 제안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자라나는 세대와 교육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다. 일본관과 더불어 특별 언급상을 받은 페루관이 시사하는 것은 최소한의 건축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환경과 미래 그리고 교육 사이의 관계망을 긴밀히 조직하는 건축적 제안이다.

로컬의 건축 쟁점으로부터: 한국관의 논점을 중심으로

네 번째, 앞선 국제적 이슈와 상대적으로 자국의 건축적 환경이 지닌 한계로부터 이를 극복하는 건축적 노력에 주목한 국가관들이 있다. 자국의 건축적 환경을 주목한 국가로 폴란드는 건축 담론에서 배제된 건설업계의 노동 환경을 꼬집는다. 건축에서 소외된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공정무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밖에 뉴질랜드관은 군도의 토포그래피를 바탕으로 한 여러 대지 모형을 통해 환경, 지형, 건축적 논쟁들을 담아낸다. 마우리 족이 언덕에 정착한 과거로부터 현재 관광 정책과 이상 기온으로 인한 섬의 위기까지 서정적 연출 방식 안에서도 비평적 견해를 아끼지 않는다.

‘용적률 게임’을 주제로 한 한국관은 도시 팽창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형성된 서울의 특수한 건축적 환경을 담론화 한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올해 김성홍 감독이 제시한 본 주제는, 용적률이 중심이 된 도시생성원리를 바

탕으로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맞닥뜨린 도시 지형도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건축적 실험을 제시해 보인다. 이를 다루는 전시 연출 방식에 있어서는 미학적 태도가 상당히 견지된다. 여기서 미적 형식, 난해한 건축적 개념이나 전시 연출 효과를 위한 극적인 미장센은 배제된다. 전시는 도표와 분석 패널들이 가득해 다소 딱딱하고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만으로도 이미 국내 건축계에 시사하는 바는 꽤 큰 편이다. 건축의 개념화된 언어에 거리를 두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환경의 지형도와 이에 접근하는 건축적 제안과 한계, 그리고 이후의 가능성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서울에서의 용적률 게임은 경제적 가치를 쫓아온 사회와 개인, 우리 모두의 욕망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개별 건물마다 용적률과의 게임 속에서 건축적 환경과 주변 환경, 도시 조망권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한국의 건축가라면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첫 번째 숙제이다. 전시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60만동의 주택에서 분석된 건축 데이터는 용적률 게임을 둘러싼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결국 이 게임에는 건축주, 건축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경제, 도시, 사회, 경제, 정치, 법이 서로 긴밀하게 작동한다. 숨 쉴 수 없이 빼곡한 도시 풍경 속에서 이를 조율하는 가운데 건축적 가치 또한 도모해야 하는 한국 건축가란 말 그대로 게임 선수이다. 전시장의 가운데에 설치된 36개의 건축물 모형은 용적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개별 건축가들이 어떻게 각각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다뤄보이는지를 보여준다.

사각의 큐브를 요리조리 깎아낸 듯한 건축 모형들을 보고 있노라면, 용적률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일조권, 조망권 등 여러 주거 조건과 도시환경 사이에서 고심했을 건축가들의 숨은 노고들이 느껴진다. 이렇게 제각기 다른 모양의 큐브를 가운데로 두고, 전시장에는 서울의 인구밀도, 도시화를 분석 데이터가 세부적 그래프와 더불어 소개가 되고 있어 도시팽창의 역사와 현황,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건축전에는 여러 미술작가들의 작업도 함께 소개가 되어, 지나치게 통계화 된 건축적 접근 방식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도시의 미관과 삶의 풍경 등 시각예술 작가들의 예민한 감각과 상상력을 더한다. 서울의 도시풍경에 대한 미술의 시선이 건축 도면, 데이터 자료, 모형에서 배제된 시

각적 요소와 세부적인 정서로 적절히 수렴이 되는 지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관을 전체적으로 빈틈없이 충실하게 메워낸 공간 구성 안에서 객관적 아카이브, 건축 모형과 제안, 미술 작업이 서로간의 온도를 비스듬하게 맞추고 있어, 도시 현상의 이면과 배후에 접근할 일종의 시각적 장치가 강조된다면 관람객의 의식과 상상력 또한 가중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본다. 용적률을 둘러싼 도시재개발 논쟁, 용적률 게임으로 인해 소외된 삶과 도시풍경에 대한 발언, 정부기관과의 민간 사이에서의 갈등, 게임 선수들 사이에서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 등을 뜨겁게 발언하는 예술 언어가 현상의 배후와 실체를 보다 과감하게 지시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본다.

궁극적으로 이 주제는 김성홍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경제력이 있는 아시아의 대도시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공통의 숙제’라 언급하였듯, 여전히 도시팽창의 진통을 겪고 있는 아시아 도시 밀도에 대한적 모색으로 나아가야 한다. 파괴와 성장 사이에서 급속하게 변화해온 서울이 안고 있는 용적률 게임은 한국의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층빌딩, 재개발 계획에 있어서 더 첨예하게 다뤄진다. 예를 들어, 홍콩의 미로 같은 고층 슬럼은 좁은 지형적 조건과 거주난을 증명하는 건축적 특징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빼곡히 자리한 건물들 사이에서 개별 건물들의 형상을 인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메가 시티의 메가 볼륨을 모델로 유형화한 스위스 건축가 ‘엠마누엘 크리스토프와 크리스토프 간던바인 (Emanuel Christ & Christoph Gantenbein)’의 ‘홍콩 타이포로지(Hong Kong Typology)’는 홍콩 거리의 건물 44개를 골라, 각각 1/200 스케일로 모형화한 작업인데, 이를 한국관에서의 ‘용적률 게임’과 관련해 볼 때 흥미로운 연계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이득으로부터 기형적으로 거대화된 건물 형태와 이에 저항해 최대한 자율적인 방식으로 용적률을 극복하려 한 지점, 과밀도시에 담긴 다수의 꿈과 최대한의 삶, 일종의 공공재(The Commons)로서 삶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건축적 이상과 변형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관이 다루고 있는 ‘용적률 게임’이 자국의 도시생태뿐만 아니라 서울, 홍콩, 싱가포르, 심천 등 아시아 메가시티를 지배하고 있는 도시성장논리와 경제적 욕망으로부터 보다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도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으로 이어져나갈 바란다.

위기에 맞서는 건축 제안의 다음 행보

올해의 비엔날레는 건축의 사회적 역할 뿐만 아니라 건축 전시가 어떠한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한 성과를 지닌다. 전 세계 건축계가 치열하게 각국의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축적 제안들에서 서로 힘을 실어 준 분위기이다. 파빌리온의 벽을 부수고, 사람들의 태도를 각성시키기 위한 신문을 배포하고, 함께 모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등 건축계의 윤리 의식이 고조된 분위기이다. 이를 미학적으로 집중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국가관에서 공동의 합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축적 의지는 큰 성과라 생각된다. 특히나 도시 계획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자생적 마을, 자생적 환경, 자생적 커뮤니티로부터의 지혜가 강조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삶 전반적인 관계망 속에서 진행된 건축적 제안들은 다시 각국으로 현실적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건축에서의 논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국제문제 그리고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각적인 논의로 진척되어야 한다. 사회 참여적 역할로부터 고조된 건축의 윤리 의식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비엔날레가 종료된 후, 각국으로 돌아갈 건축적 논의의 장은 더욱이 중요하다. 서울에서 시작된 ‘용적률 게임’이 이제 서울에서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건축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지속적 논의와 제안으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 □

※ 본 글은 필자가 ‘환경과 조경’ 2016년 9월호에 기고한 원고를 바탕으로 추후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필자 소개

심소미는 독립큐레이터로, 현대미술과 도시연구를 매개한 전시기획과 비평을 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기획전으로 ‘마이 크로시티랩’(2016), ‘신지도제작자’(2015), ‘모바일홈프로젝트’(2014) 등이 있다.